

원어스, 무모한 꿈 아닌 무제한 꿈

인어공주 스토리 각색 '인어왕자' 콘셉트
동양풍 벗어나 데뷔 후 첫 라틴 팝 도전



그룹 '원어스(ONEUS)'의 앨범은 스토리텔링이 확실하다. 정확한 주제 아래 콘셉트를 정하고, 같은 결의 트랙리스트로 앨범을 채운다. 타이틀에서는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더 명확해진다. 디테일한 스타일링, 기승전결이 뚜렷한 퍼포먼스까지 합치면 한편의 뮤지컬을 본 것만 같다.

무엇보다 원어스의 무대가 빛나는 건 자신감 덕분이다.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표현하고 싶은지 명확하기에 뒤따르는 자신감이다. 동양풍의 히트곡 '월하미인' '가자' 등으로 의상, 가사, 퍼포먼스 등을 일맥상통하게 맞추고 스토리라인이 있는 무대를 선보이며 대중에게 각인된 것도 그런 맥락이다.

열 번째 미니 앨범 '다체 비타(La Dolce Vita)'도 원어스가 하고자 하는 것이 명확하게 보이는 결과물이다. 인어공주 이야기를 착안해 '인어왕자'로 콘셉트를 잡았다. 목소리를 잃은 대신 다리를 얻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지만, 물거품으로 변하며 슬픈 이별을 맞이하는 스토리다. 바다속 청량함을 표현한 인트로부터 이별을 대하는 마음을 표현한 다섯 번째 트랙 '미리보기'까지 순서대로 전개된다. 핵심 컬러를 블루로 설정하고, 인어왕자의 비닐을 연상케 하는 비닐 소재의 의상, 눈물을 표현한 진주 메이크업 등을 준비했다.

타이틀곡 '바일라 콘미고(Baila Conmigo)'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할 수 있는 단 하루 동안 이야기를 담았다. "이 밤이 새도록 춤을 추자"는 의미를 어떻게 잘 표현할 수 있을지 생각하면서 녹음했어요. 안무 도입부에는 멤버 이도가 혼자 나와서 비련의 남주인공처럼 땅을 치거든요. 뮤지컬처럼 스토리텔링을 했어요. 인어왕자이지만 상대 역할을 하는 액티비언 요소도 많아요. 듣기도 좋지만 무대를 봤을 때 배 노래 더 확

연히 스토리가 느껴질 거예요."(한웅)

원어스가 줄곧 추구했던 동양풍과 상반되는 라틴풍이라는 것은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바일라 콘미고'는 헝가리 무곡 4번의 테마 위에 몸바톤의 리듬을 가미해 리메이크한 곡이다. 스페니시 비전까지 수록해 이국적인 분위기를 물씬 풍긴다. "동양풍 무대들을 기억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감사하지만, 원어스가 더 다양한 스펙트럼 보여줄 수 있는 아티스트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생소하지 않게 원어스의 색을 녹였어요."(건희)

"라틴 음악이 색깔이 짙잖아요. 시도하기까지 걱정도 많았지만 오히려 정교함을 선택했어요. 평상시 창범에서 조금 벗어나 다양한 디렉팅을 받고 창범이나 발음하는 부분에서 많이 노력했어요. 부모님도 노래를 듣고 '이게 네 목소리냐'고 물으시더라고요. 라틴 문화에 있는 분들도 우리 노래를 들었을 때 조금 더 쉽게 느낄 수 있도록 섬세하게 노력했어요."(한웅)

월드투어를 할 정도로 해외 인기를 자랑하는 원어스에게 또 다른 도약이 될 수 있는 선택이다. 이들은 올해 초 북남미 14개 도시에서 데뷔 첫 월드투어를 마치고, 내달부터 일본·유럽·미주 등에서 두 번째 월드투어를 연다. 원어스는 "빌보드차트에 라틴팝이 많이 있더라"며 "워낙 많은 분들이 라틴팝을 친숙하게 받아줘서 우리를 친근하게 느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스스로 욕심이 많다고 표현한 이들은 다양을 도전을 하면서도 원어스만의 색깔로 표현할 수 있다고 자부했다. "멤버들의 보이스 컬러에 한이 섞여있어요. 전원 한국인 그룹이라 그런지 한이 섞여있는 거 같아요. 강렬한 곡이나 신나는 노래를 할 때도 애절한이 묻어있는 편이죠. 자연스럽게 우리의 분

위기가 묻어 나오는 게 원어스의 자신감이에요."(한웅)

데뷔 5년 차에 정규 앨범 한 장과 미니 앨범, 싱글 한 장을 발표한 건 쉬지 않고 달려온 증거다. 여기에 일본 앨범, 서바이벌 프로그램까지 더하면 원어스는 거의 공백기가 없었다. "기회가 있을 때 최대한 많이 하는 게 좋아요. 준비 과정에서 잠도 못 자고 무릎 관절 같은 것도 많이 다치지만, 최대한 경험하고 우리를 많이 보여드리고 싶어요."(이도)

"회사에서 감사하게도 우리의 욕심을 예쁘게 봐줘요. 최선을 다해 지원해 주려고 하고, 좋은 환경 속에서 하고 싶은 음악을 할 수 있는 게 느껴져서 울컥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콘셉트에 도전하고 스펙트럼 넓은 앨범을 낼 수 있는 기회를 펼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줘서 감사해요. 앞으로도 팬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놀랄만한 무대를 꾸미고 싶어요."(한웅)

도전과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성장을 체감한다. 앨범 구성에도 직접 참여한다. 하나의 작품이라고 생각하면서 더 깐깐하게 의견을 내고, 만족할 수 있는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피드백을 한다. 데뷔 때부터 꾸준히 작사에 참여하고 있는 이도는 멤버들이 인정할 정도로 작곡 실력까지 늘었다.

"꿈의 크기가 데뷔 때 원어스가 바라보던 목표치보다 커졌어요. 당시에는 빌보드 목표 같은 얘기를 할 때 '되겠어?' 이런 생각을 조금 했어요. 전 굉장히 현실적인 편이라서 자신에게도 객관적이거든요. 스스로 확신이 없었는데 오히려 지금은 그때 생각했던 것들이 마냥 꿈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음악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거든요. 지금의 원어스는 성장 가능성이 커졌어요. 활동하면 할수록 성장하는 게 보여요."(한웅)

원어스는 더 높은 곳, 더 큰 무대를 바라보고 있다. 서호가 장난처럼 "국위선양하고 싶다"고 했지만, 현실적 원어스가 그리고 있는 꿈은 K팝 대표가 됐다. 마이클 잭슨, 레이다 가가 등 세계적인 스타들이 서는 미국 슈퍼볼 무대, 올림픽 개막식 등에서 한국풍의 무대를 선보이는 날을 기다리고 있다.

"궁극적 목표는 1위가 아니라 좋은 무대를 남기는 거예요. 언제든 최고의 최선의 무대를 하지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지지치 않았던 것 같아요. 예상했던 것보다 못 미친 결과 때문에 실쾌라고 느끼지 않아요. 더 가치 있는 무대를 남기는 게 우리의 약속이에요."(건희)

'4세대 대표 퍼포머' 타이틀을 가진 이들은 5세대 아이돌들이 속속히 등장하는 가운데 자신감이 가득하다. "팀에 대한 확신을 느낀다"는 원어스의 말에 앞으로 더 활활 타오를 불씨가 보인다.

"우리 멤버들은 '아이돌' '아티스트' '가수' 라는 직업에 대한 애티튜드가 확실하게 박혀있어요. 5세대가 여러고 수많은 아티스트들이 나와도 큰 걱정이 없는 이유죠. 활동한 지 5년 차가 됐지만 아직까지도 이 일에 대한 열정이 커지고 있어요. 지금도 춤과 노래 레슨을 받고, 해외에 나가서도 수업을 들으려고 해요. 회사에서도 우리를 신뢰해 줘서 걱정이 없어요."(한웅)

"현장에서 정말 자란 것 같아요. 스토리텔링 퍼포먼스나 라이브에 자신이 있죠. 우리가 공연할 때만큼은 우리만의 세계로 만들고 싶어요. 이번에도 인어왕자 스토리 안에 들어 것처럼 공간이 하나가 되는 무대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건희)



스트레이 키즈, 고척스카이돔 2회차 공연 매진

대세 그룹 '스트레이 키즈(Stray Kids·스키즈)'가 서울 고척스카이돔 입성 단락을 매진시켰다.

26일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지난 18일 팬클럽 '스테이(STAY)' 3기를 대상으로 한 선예매와 20일 진행된 일반 예매에서 '파이브스타 돔 투어 2023 서울 스페셜(엔베일 13)' 2회 티켓이 모두 팔려나갔다.

스트레이 키즈는 오는 10월 21~22일 고척스카이돔 '엔베일 13'을 펼친다. 고척스카이돔은 국내 최대 실내 공연장인데, 스트레이 키즈는 데뷔 5년 만에 이곳에 입성하게 됐다. 방탄소년단, 세븐틴, NCT 127, NCT 드림, 블랙핑크 등 내로라하는 K팝 팀들이 공연한 곳이다.

이번 공연은 '파이브스타 돔 투어'의 하나다. 앞서 스트레이 키즈는 이 투어의 일환으로, 일

본 4개 도시 8회 공연을 매진시켰다. 사전 응모만 약 250만 건이 달했다.

이에 따라 스트레이 키즈는 한국과 일본 5개 도시에서 총 10회 돔 투어 매진 기록을 세웠다.

스트레이 키즈는 후쿠오카 페이페이 돔, 반테린 돔 나고야, 교세라 돔 오사카 공연을 성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고척스카이돔에 이어 오는 10월 28~29일 일본 도쿄돔에서 화려한 피날레를 맞이한다.

스트레이 키즈는 최근 일본 외에도 전 세계에서 주가를 높이고 있다. 그룹 내 자체 프로듀싱 팀 스라라차(3RACHA)의 방찬·창빈·한은 23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뉴욕 센트럴 파크에서 열린 '2023 글로벌 시티즌 페스티벌'(2023 Global Citizen Festival)에 출연했다.

하이브 '드림아카데미' 2차 미션, 29일 공개



하이브 글로벌 걸그룹 오디션 '더 데뷔: 드림아카데미(The Debut: Dream Academy)'의 두 번째 미션 곡이 공개됐다.

미션 곡은 그룹 '르세라핌'의 '피어리스(FEARLESS)'와 '안티프래자일(ANTIFRAGILE)'이다. 참가자 18명은 이들 곡으로 4명이 탈락하는 서바이벌 미션을 치르게 된다.

'더 데뷔: 드림아카데미' 측은 하이브 레이블즈 플러스(HYBE LABELS+) 유튜브 채널에 26일 이 같은 내용의 두 번째 미션 안내(MISSION 2: TEAM MISSION) Announcement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서 미션을 듣기 위해 한 자리에 모인 참가자들 앞에 화면 가득 르세라핌 멤버들이 등장했다. 르세라핌이 소개한 2차 미션에 따르면 참가자들은 총 4팀으로 나뉘어 경연을 펼친다.

1차 미션 퍼포먼스에서 살아남은 18명의 참가자는 르세라핌의 데뷔곡인 '피어리스(FEARLESS)'와 미니 2집 타이틀 곡인 '안티프

래자일(ANTIFRAGILE)'을 각 두 팀씩 맡아서 대결한다. 동일한 곡으로 두 팀씩 경쟁하는 만큼 개인의 실력과 매력은 물론 팀의 전체적인 밸런스와 퍼포먼스 완성도를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다.

브루클린(미국)·렉시(스웨덴)·마키(태국)·메이(일본)·나영(한국)이 A팀, 셀레스테(아르헨티나)·다니엘라(미국)·에즈렐라(오스트레일리아)·마농(스위스)·우아(일본)가 B팀이 돼 '피어리스' 무대를 펼친다. '안티프래자일' 퍼포먼스로 경연하는 팀은 에밀리(미국)·라라(미국)·소피아(필리핀)·윤채(한국)의 A팀과, 칼리(미국)·일리아(벨라루스)·메간(미국)·사마라(브라질)의 B팀이다.

르세라핌은 "팬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은 곡이라 참가자들이 이 곡을 어떻게 표현할지 기대된다"라고 했다. 이어 "르세라핌 곡으로 무대를 준비해서인지 '드림 아카데미' 참가자와 특별한 연결고리가 생긴 것 같다. 걱정도 되고 긴장도 되겠지만 자신감을 잃지 말기를 바란다. 끝까지 응원한다"고 덧붙였다.

첫 번째 미션과는 다른 규칙과 투표 방식도 눈길을 끈다. 시청자들은 '피어리스'를 부른 두 팀 중 두 명, '안티프래자일' 무대를 꾸민 두 팀 중 두 명을 선택해 총 4명에게 투표할 수 있다. 한 팀에서 두 명을 선택해도 된다. 이렇게 모인 참가자 개별 투표 점수를 모두 더해 팀의 평균 점수를 산출한다. 이후 각 곡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은 팀의 참가자들에게 탈락 면제권이 주어진다.

'더 데뷔: 드림아카데미' 두 번째 미션 퍼포먼스 무대는 오는 29일 자정 하이브 레이블즈 공식 유튜브 채널과 일본 ABEMA, 글로벌 팬덤 라이프 플랫폼 위버스에서 시청할 수 있다. 영상이 공개된 직후 유튜브와 위버스 채널을 통해 공식 투표가 시작된다.

김혜자 "최불암, 연기 안 해 안타까워... '한국인의 밥상'만 하냐"



배우 김혜자가 국민 드라마 '전원일기'에서 부부 호흡을 맞췄던 배우 최불암이 연기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을 아쉬워했다. 최불암은 25일 방송된 tvN STORY 예능물

tvN STORY 예능물 '회장님네 사람들' 방송

'회장님네 사람들'에서 "처음에 '전원일기' 아버지 배역을 받았을 때 내가 농사 지어봤나 몰랐다. 아무것도 몰랐다"고 털어놨다. 이에 김혜자는 "최불암씨가 김회장 역을 잘 했다"고 치켜세웠다.

김용건은 "한국의 아버지 상 하면 최불암, '한국의 어머니상' 하면 김혜자"라며 "(최불암이) 많은 작품 했지만 그래도 형님은 '전원일기'다. 많은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김혜자는 "최불암 같은 배우가 어딴다. 그러니까 나이 먹어서도 연기 하시라"고 강조했다.

최불암은 "드라마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시대가 없다. 아버지가 가족을 다스리고 동네 걱정하고 이런 아버지 상이 없어졌다"고 연기를 중단한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김혜자는 "아버지상을 꼭 그려야 되냐. 나이 먹은 사람의 그런 걸 그리는 것도 좋지"라고 맞받아쳤다. 그러면서 "난 최불암 같은 분이 나이 먹어서 연기 안 하는 게 안타깝다. 무슨 '한국인의 밥상'만 하고 다니냐"고 솔직하게 말했다.

뉴스스

'김연아 남편' 고우림, 11월20일 현역 입대

크로스오버 그룹 '포레스트라' 멤버 고우림(28)이 입대한다.

26일 소속사 비트인터테인먼트는 "고우림이 오는 11월20일 육군 현역으로 입대한다. 육군 군악대로서 성실하게 국방의 의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우림은 이날 공식 팬카페를 통해 팬들에게 입대 소식을 알리며 "맛지고 늠름하게 국방의 의무를 잘 마치고 돌아올테니 기쁘고 가벼운 마음으로 이 소식을 전해 주셨으면 좋겠다. 얼른 돌아와서 완전체 활동을 이어가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입대 전까지 고우림은 '2023 포레스트라 페스티벌'을 비롯한 공식 스케줄을 예정대로 소화하며 팬들과 인사할 예정이다.



한편 고우림은 전 피겨스케이팅 선수 김연아와 3년 열애 끝에 지난해 10월 결혼식을 올렸다.